

12지 이야기(5) 용 - 상상의 동물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j8509@comcast.net



거대한 뱀의 모양을 한 용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으며, 얼굴은 길고 입가에 수염이 나 있다.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빨은 사슴, 귀는 소, 눈은 토끼, 목은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범과 같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이처럼 들짐승, 물짐승, 날짐승의 여러 가지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못 동물의 우두머리로 꼽힌다.

중국사람들이 끔찍하게 섬기는 동물. 바다나 호수의 물 속에 살며, 때로는 자유로이 공중을 날아서 구름과 비를 몰아 풍운의 조화를 부리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기린 봉황 거북과

함께 전설상의 네 가지 신령한 동물[四靈]이다. 인도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간주되기도 했다.

사는 곳이 물 속이라 민간신앙에서는 물을 지배하는 수신이자 바다를 지배하는 왕이다. 1997년 11월에는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 연못을 준설하다가 구리와 납으로 만들어진 용 조각물을 발견했다. 용은 예로부터 왕의 상징물로 이용되기도 했고, 화재의 예방을 비는 데에 자주 사용되었다. 조각물은 길이 150센티미터에 무게는 67킬로그램으로, 그 복제품이 다음 해 2월에 같은 연못에 다시 방생되었다.

불가사의한 동물이다 보니 용이 상징하는 것도 매우 다양하다. 조화를 부리는 초능력을 가진 존재여서 천자에 비견되었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에 많이 쓰였다.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고, 임금의 수염은 용수였으며, 임금의 눈물은 용루, 임금이 입는 옷은 용포 또는 곤룡포, 임금이 타는

수레는 용가 또는 용거,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는 곳은 용상이었던 것이다. 과거에서 문과에 장원한 사람을 용두라 불렀으며, 등용문은 입신 출세에 연결되는 어려운 관문이나 시험을 나타내는 말이다.

가공의 동물인 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인간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성스럽고 신비한 존재였다. 오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은 용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는 용

왕의 딸과 결혼했고, 조선 건국의 위업도 용비어천가로 찬송되었던 것이다.

용피의 사람은 건강하고 정력적이며 정직하고 용감하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뢰감도 두터운 성격이다. 물욕이 없는 편이며, 아첨하는 것을 싫어한다. 도량이 넓고 생명력이 넘치며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한다. 반면 화를 잘 내고 곧잘 흥분하며, 고집이 세고,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성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남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무모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직선적이다. 앞으로 전진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옆이나 뒤를 돌아볼 줄 모른다. 외향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활동가, 여행가, 그리고 뛰어난 언변가의 기질이 있다.

용을 보는 시각은 동서양이 극명하게 갈린다. 서양의 용은 온갖 모습으로 표현되는 전설상의 괴수다. 목에는 뱀 장식을 지니고,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입으로 불을 뿜는다. 날개를 달고 땅위를 기어다니는 거대한 동물이다. 아주 큰 뱀에, 악마의 우두머리에, 때로는 매우 엄격한 사람에 비유되기도 하며, 악의 상징이어서 퇴치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한 서양 용의 후손들이 인도네시아의 섬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허술한 방호벽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현존하는 최대의 도마뱀이다. 회색에 길이는 3미터, 무게는 150킬로그램에 달한다. 엄청나게 큰 이 도마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아주 오랜 옛날의 지도에 화려한 빛깔로 적힌 '용이 있는 곳'이라는 세 글자이다. 탐욕스러운 사냥꾼인 녀석들은 한 시간에 20킬로미터를 달린다. 물레 숨어있다가 멧돼지 사슴 염소 등의 배를 물어뜯거나 다리에 상처를 입힌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으로 불을 뿜는다. 질질 흐르는 침에 지혈을 막는 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습격 당한 사냥감은 출혈을 계속하게 되고, 상처부위가 감염되어 거의 틀림없이 죽게 된다.

오십 년을 거뜬히 사는 코모도드래건의 조상은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살던 공룡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남아 지금은 햇볕을 쬐고, 사냥하고, 썩은 고기를 먹고, 알을 낳는다. 도마뱀의 생태와 아주 비슷해진 것이다. 어떤 집단이나 어느 한 부족의 내력,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등이 민간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설이라고 일컫는다. 아득히 먼 옛날 사람들의 공룡 체험이 용의 전설을 낳은 건 아닐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공룡의 위력이 바로 용이 지니는 무소불능의 신화를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이면서 60년 만에 오는 황금용의 해이기도 했다. 전세계에 퍼져 사는 중국사람들이 행운과 부의 상징인 용의 해를 맞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그 해 초 축하연을 벌였다. 홍콩에서는 300미터짜리 용이 축구장에서 새천년을 향해 용트림을 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사는 중국인의 출산율이 증가하기도 했다. 행복이나 부와 연관된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까.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뇌우는 회오리바람을 동반하여 해면에 도달하면 물을 빨아올리고 육지에서는 지상물을 파괴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용오름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토네이도라고

부른다. 처음은 거창했으나 끝이 별로 보잘 것 없으면 용두사미(龍頭蛇尾)다. 두 강자가 싸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을 용호상박(龍虎相搏), 장수들이 용맹스럽게 싸우는 모양을 용양호박(龍揚虎搏),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듯한 웅장한 산세를 용반호거(龍蟠虎踞)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용과 서로 맞서 겨룰 만한 동물은 호랑이뿐인 것 같다. ▼

